

# 달 뜬다... 별 뜬다... 그라운드 후끈 달아오른다



손연재

백두장사 장성복

김경태

기성용

추석연휴에도 그라운드는 뜨겁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치열한 경쟁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KIA 타이거즈가 끝나지 않은 프로야구 5강 싸움의 중심에 서고, 광주 FC는 상경해 FC 서울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등 '태극 전사'들이 유럽무대를 누비고, 한국남자농구 대표팀은 2016년 리우 올림픽 본선 티켓을 노리며 중국 창사에서 아시아선수권대회 일정을 소화한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와 세계적인 체조 스타들이 함께하는 공연에도 눈길이 쏠린다. 명절 분위기를 돋울 추석장사씨름대회는 24일부터 경북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닷새간 계속된다.

◇프로야구 = 와일드카드를 잡아라. 5강 자리를 놓고 KIA 타이거즈, SK 와이번스, 롯데 자이언츠가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추석연휴에도 5강 싸움은 쉬지 않는다. 그 중심에 '호랑이 군단'이 있다. KIA는 추석 연휴 첫 날인 26일 SK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승부를 벌인다. 앞선 SK와의 원정 3연전에서 1승2패를 거두는데 그치면서 5강 계산이 복잡해졌다. 두 팀의 올 시즌 마지막 대결. 양팀은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인다.

연휴 마지막날에는 롯데와의 만남이 이뤄진다. 28일 잠실에서 LG와 대결을 갖는 KIA는 연휴 마지막날인 29일부터 롯데와 원정 2연전을 치른다. KIA는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전력을 최대화하기

## 프로야구 5강 전쟁

### KIA, 26일 SK와 홈경기

### 전통놀이 체험 등 이벤트

### 29일부터 롯데 원정 2연전

위해 KTX를 타고 이동한다. 두 팀의 마지막 승부는 5강을 가늠할 비매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KIA는 연휴기간 안방에서 열리는 SK전에서 다양한 장내와 이벤트를 펼친다. 챔피언스필드 주변에 전통놀이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한마당을 연다. 추석 분위기를 위해 붓글씨로 가훈을 써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외야 샌드파크에서는 '한가위 어린이 장사씨름 대회'가 열린다. 경기 전 사전 점수를 통해 예선전을 진행하며, 결승전은 클리닝 타임때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된다. 경기 중에는 추석 특집 'O, 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차어들더들은 한복을 차려 입고 특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프로축구 = 광주 FC가 승점 사냥을 위해 서울로 간다. 광주 FC는 오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 서울과 맞붙는다. 지난 8월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광복 70주년 국가기념행사가 열리면서 연기됐던 일정이다. 연휴를 반납하게 됐지만 광주는 큰 무대에서 간절한 승부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며 8승11무12패(승점 35)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광주는 이목이 쏠린 경기에서 값진 승점을 더하며 클래식 잔류를 조기에 확정하겠다는 각오다. 승점 3점차로 성남에 이어 5위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은 상위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전북전에서 6호골을 집어넣으며 물오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광주 김호남과 득점 1위 김신욱(14득점)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삼바 특급' 서울 아드리아노(13득점)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농구 = 예년보다 한달 일찍 막이 오른 프로농구는 추석 연휴에도 계속된다. 추석 당일인 27일 고양 오리온이 서울 삼성과 홈에서 만나고 '디펜딩 챔피언' 울산 모비스는 부산 케이트를 상대한다. 전주 KCC와 창원 LG의 대결도 펼쳐진다. 26일에는 LG-케이티, 원주동부-안양KGC인삼공사, 28일에는 서울SK-인삼공사, 인천전자랜드-동부와의 경기가 진행된다. 29일에도 KCC-삼성, 모비스-오리온이 대결을 갖고 분주한 추석 연휴를 보낸다. 남자농구 국가대표팀도 연휴를 잊었다. 대표팀은 27일부

## EPL 손흥민·기성용·이청용

### 26일부터 릴레이 출격

### 손연재 26~27일 갈라쇼

### '1000만 달러' PGA 챔피언십

터 29일까지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열리는 제28회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 2차 조별리그를 치른다.

◇유럽축구는 유럽 무대를 누비는 '태극 전사'들로 추석의 밤도 뜨겁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손흥민이 26일 오후 8시45분(한국시간) 열리는 맨체스터 시티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쌍용'도 뜬다. 26일 오후 11시 기성용의 스완지시티가 사우샘프턴 원정 경기를 펼치고, 자정에는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의 왓퍼드 원정전이 시작된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한국인 트리오' 구자철, 홍정호, 지동원이 버티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와 김진수의 소속팀

인 호펜하이머가 만난다. 26일 오후 10시30분 독일무대에서 펼쳐지는 '코리안 더비'다.

◇체조 =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는 우아한 자태로 한국의 미를 전한다. 26~27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메이킹Q 리드믹 올스타즈 2015'가 진행된다. 손연재는 마르가리타 마문, 알렉산드라 솔다토바(이상 러시아), 멜리타 스타뉴티(벨라루스) 등 세계 최정상급 리듬체조 선수들과 갈라쇼를 갖고 팬들에게 인사를 올린다. 추석 분위기에 맞는 한국적인 맛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씨름·테니스·골프 = 추석에 씨름이 빠질 수 없다. 추석장사씨름대회가 24일 예선을 시작으로 28일까지 경북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이어진다. 태백(80kg이하), 금강(90kg이하), 한라(110kg이하), 백두(150kg이하)까지 4개 체급에서 '추석 장사'가 탄생한다. 국내 유일의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도 27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코र्ट에서 펼쳐진다. 슬론 스티븐스(33위·미국), 바버라 램펜코(38위·미국), 율리아 괴르게스(54위·독일) 등 정상급 선수들이 코트에 등장한다. 1000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을 놓고 벌이는 샷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상문이 24일 개막한 미국프로골프(PGA)의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해 보너스 상금에 도전하다.